



사랑과 봉사와 웃음으로
 하나가 되는 서귀포시!
 자원봉사로 만들어 갑시다.



사랑의 나눔

2022년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소식지 VOL. 18



사랑나눔

2022년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소식지 VOL. 18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두만 센터장

편집인 강문상 사무국장, 김진아 운영지원팀장

사 진 이현우(교육담당)

발행처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2층 (Tel.064-738-0716~8)

디자인 도서출판 오디콤 064-739-0745

* 이 책에 실린 자료는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04 인사말

- 김두만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06 파워인터뷰

- 이종우 · 서귀포시장
- 황서중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5 전문가 칼럼

제주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방향에 관한 소고
- 오윤정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비영리조직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 정희선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봉사센터 운영방식, 談論의 장 필요
- 강문상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33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소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주요 연혁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향
2022년도 비전 및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운영위원 명단

41 편집실 특집

특집 1 기후 위기와 제주 사회적 경제의 역할
- 한정희 · (주)푸른컵 대표
- 김석 ·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특집 2 이 사람 주목!
- 박미정 경사 · 중문파출소
- 송영순 ·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 강순미 · 드림기획 대표
- 민왕건 · 아이뷰티스토어 대표
- 이창용 · 모다드림 봉사단 단장
- 오치훈 ·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탁구 봉사활동가
- 김신민 ·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담임목사
- 강충근 · 서귀포시 동홍동 맞춤형복지팀장
- 조만기 · (주)조광환경사업개발 대표
- 김종곤 · 중앙장학회 회장
특집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 소도리' 정책 소개
- 자료정리 : 오봉주 서귀포시청 주무관
특집 4 2022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현장 속으로
특집 5 2022 자원봉사 전국대회 현장을 가다

70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응원 메시지

72 올해 10대 핵심사업의 성과와 반성

- 사랑의 밥차 사업
- 중앙공모사업 성과
-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 감성-소통-이음 프로젝트 「봉사하쇼: 좋은수다」
- 지방 보조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센터 양성 '모다드림봉사단' 의 활약, 플로깅

85 줄 잇는 후원금(물품), 소중히 쓰겠습니다.

90 서귀포시자원봉사활동 소회 메시지

92 내년도 사업, 성과산출형으로 변화 모색

97 통계로 보는 자원봉사

102 올해를 빛낸 봉사단체 소개

서귀포의료원 「누리보듬봉사단」을 찾아서
「서귀포소방서 대신여성의용소방대」를 찾아서
「서귀포경찰서 모범안전자회 서귀포지회」를 찾아서
「서귀사랑 봉사회」를 찾아서
「삼성나-너 우리봉사단」을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서귀포시지부」를 찾아서

108 화보로 보는 자원봉사 현장

118 기고

봉사는 길 위에 우뚝 서다 - 홍기확
자원봉사의 송고한 의미 - 문경옥
자연의 경교에 귀 기울이며... - 채금숙
지귀도에도 해풍은 스치는데 - 박영주
봉사활동 22년, 내 삶에 침투는 없어 - 이창순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무엇일까? - 이수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 지원해 드립니다 - 권은애
나비봉사단, 창단 첫해를 보내며 - 정덕숙
'세계 관광1번지' 서귀포시로 가는 열쇠 자원봉사자 - 김지석
팬데믹 이후의 청소년 봉사 활동 짧은 생각 - 김대흠
나의 제주도 봉사활동 이야기 - 배근휘
특별기고 / 가장 아름다운 말 '봉사' - 문상금 · 시인

134 서귀포시자원봉사자 응원 메시지

136 2022년을 빛낸 자원봉사자

143 알아두기

158 편집후기 한 해의 뒤안길에서 소식지를 펴내며...



표지이야기

올해 5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실외로 구분되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의 밥차 봉사가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매주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서귀포제일교회(담임목사 배성열) 봉사단이 밥차 봉사에 수고해 주었으며,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참여해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전지적 봉사시점, 힘찬 새 출발을 기약하며



김두만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올 한 해도 예외 없이 제18호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 속의 이야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와의 기타긴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원봉사 물결운동만큼은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밥차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식료품 꾸러미를 꾸려 어려운 이웃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일에도 봉사자 여러분들이 나섰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센터와 서귀포의료원,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확진 검사 장소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지붕 수리와 페인트 도색은 물론, 늑늑한 집안 환경을 새 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여러분의 재능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종 축제와 여러 행사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복지 수요와 공급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몫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 자원봉사가 그 영역을 넘나들며 공공부문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 따라 활동 분야도 갈수록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더욱 매진해나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함께 해 나아가겠습니다.

전지적 봉사 시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봉사자 여러분께 바칩니다.

2022년 12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듣는다



Q 먼저, 지난 8월,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정의 최상위 목표를 '건강 도시'로 정하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정방향, 원칙, 성장 가치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서귀포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행복한 민생복지', '튼튼한 산업육성', '다양한 문화육성', '깨끗한 청정환경'을 시정방침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서귀포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열린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등 해소, 시민화합, 균형발전 등 조화롭고 행복한 도시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Q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16단체 5만여 명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는 물론, 각종 축제와 행사의 성공적 뒷안길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등불과도 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한 말씀 전해주세요.

A 우선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매일 같이 노력해주시는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란 것이 누가 시켜서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Q 서귀포시장으로서 내부 고객에 대한 복지정책과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전망은?

A 그동안 코로나19와 여러 현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을 위하여 국내 힐링 문화 탐방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돕기 위하여 유명 강사의 특강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을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이 행복할수록 시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대화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여 서귀포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지난 10월, 서귀포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업종 52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과 개인을 발굴하여 제보하자는 ‘서귀포시 희망 소소리 발굴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후 가시적인 성과와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희망 소소리 발굴단 출범 이후 공공, 민간, 생활밀착형 업종을 포함하는 52개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회의를 15회 정도 진행하여 출범 이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출범 초기인 만큼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특색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시장님의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A 흔히 자원봉사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의 의지로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봉사와 기부를 하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건강과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봉사입니다. 모두가 봉사라는 한걸음을 내디딘다면 서귀포시가 진정한 건강도시, 행복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오늘도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지금까지 보여주신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건강한 서귀포시를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황서종 이사장에게 듣는다



- Q** 먼저,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A** 우리 공단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198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공단은 지속적인 연금·재해보상 서비스 혁신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은 물론 주택사업, 은퇴 지원사업, 공유복지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공무원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해 왔고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ESG,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창단 40주년을 맞은 우리 공단은 새로운 미래 도약을 꿈꾸며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제주지역이어서 그런지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활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A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팔과 쌀을 뺀아 따끈하게 떡을 찌고 이웃에 돌리며 인사를 하는 것이 정겨운 우리나라의 이사풍습입니다. 공단이 제주로 이전해 오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일이 떡을 나누며 인사 하기는 어려워도 지역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천혜의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공단은 2016년도에 사육 근처의 올레 7코스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 꾸준히 클린올레 환경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중문 색달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최초 입양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태풍피해 지원도 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친해진 이후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눈을 돌려 지역물품 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마을기업의 시장진출 컨설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선물상자 나눔,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 노약자를 위한 사랑의 밥차, 청소년 홀로서기 멘토링 등 전 임직원과 은퇴공무원이 함께하는 나눔활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매주 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제주지역 유일의 '사랑의 밥차사업'에 매년 후원과 봉사활동에 동참해 왔는데 느끼셨던 소회는?

A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랑의 밥차 사업'에 공단이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햇반·통조림·국거리 등 식료품 키트를 꾸려 매주 250여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올해 5월부터는 사랑의 밥차 사업을 재가동해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에 따끈한 밥 한 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 등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을 맞은 은퇴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구축 프로그램이나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주시오.

A 공단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공직경험과 전문성 등을 이웃과 공동체에 나눔으로써 삶의 보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은퇴공무원 개인별 경력이나 보유재능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연금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초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 15,000여명의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 367개가 교육, 안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로부터 노하우플러스 사업(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위탁받아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39개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중·장년 일자리 매칭 컨설팅 사업" 2개는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전국의 은퇴공무원 22명이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적극 실천중입니다.





Q 끝으로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 그리고 서귀포 지역의 5만 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우리 공단이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지 벌써 햇수로 8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공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소통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직무연계 전공을 신설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또 서귀포시와 협업하여 지역 내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의 유휴공간에 서귀포 최초의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봐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사회의 발판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힘써 주시고 계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봉사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과 땀방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칼럼



제주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방향에 관한 소고



오윤정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자원봉사(自願奉仕)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
- UN에 의하면 자원봉사주의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또는 재정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원봉사자, 또는 전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실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송민경, 2016 재인용)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조직화되고 제도적 지원을 받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은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이행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의 수립 시점이며, 최근 마련된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정책 패러다임을 “뉴노멀(The New Normal) 자원봉사 시기”로 접근하고 있음
 - 제도화된 자원봉사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제반 영역과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화합, 자원봉사 가치 확장 및 참여 확산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함
- 제주지역¹⁾의 경우, 제1차 국가기본계획(2018-2012)이 수립되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먼저 설립 운영(2000.2.22.)되었고, 이어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2005.7.10.)가 개소하였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원봉사조례 제정(2006.10.11)을 통해 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2007.6.13.)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들 간의 수직적 수평적 기획 조정 역할의 미비, 기능과 역할의 중첩,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사업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현혜경외, 2020)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도-행정시 자원봉사센터 간 역할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거나, 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는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자원봉사센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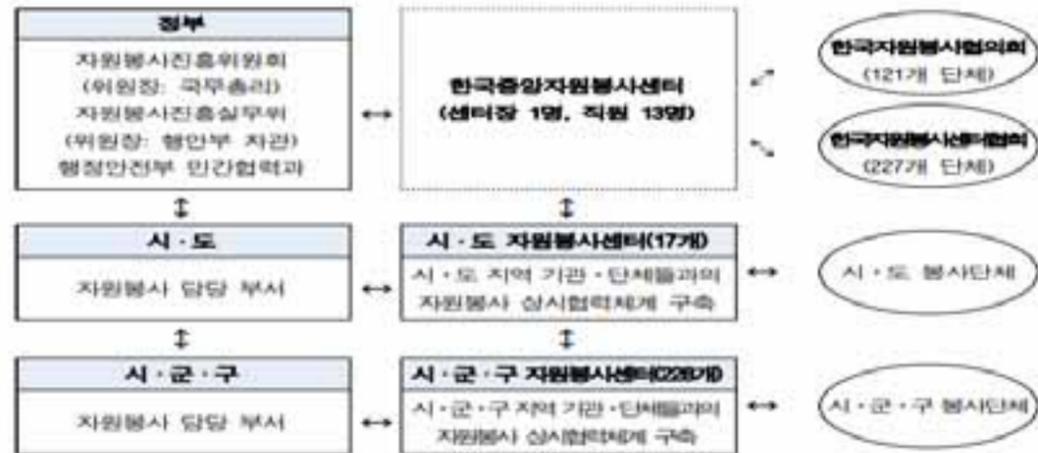
1) 2014년 한국자원봉사학회 제4대 회장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준 교수가 취임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자원봉사의 학술적인 논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행정부에서 비영리법인허가증 취득하면서 전국단위 사단법인 자원봉사학회가 출범하였음

II. 본론

1.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조직은 다음과 같음

자원봉사 진흥 정책추진 및 지원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자원봉사학회(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p.32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체	남자	13.0	14.6	14.3	19.3	19.8	19.9	18.2	17.8	16.1	8.4
	여자	13.8	14.1	14.6	19.3	20.1	20.1	18.7	18.8	17.0	8.7
연령 집단	20세 미만	33.8	52.4	59.5	79.8	77.7	80.1	78.6	78.4	76.1	23.3
	20-29세	7.8	10.3	8.3	13.9	13.2	13.7	11.8	11.5	9.9	6.4
	30-39세	13.2	11.6	10.2	13.6	11.2	11.2	10.6	10.7	9.8	4.8
	40-49세	13.0	14.2	13.9	18.6	17.0	17.3	15.6	17.0	15.4	8.9
	50-59세	10.8	12.2	12.4	15.5	14.6	14.5	14.6	14.2	12.6	9.4
60세 이상	6.7	6.7	6.5	7.0	7.2	7.8	7.8	7.8	8.1	6.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e-나라지표

주) 1)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자원봉사학회(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p.28.

○ 지난 10여 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증가추세 있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로 작용하는 부분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79.5%),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78.3%),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7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자원봉사학회(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p.31

○ 제4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회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뉴노멀 사회에 대응한 자원봉사 고도화’를 정책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비전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자원봉사학회(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p.21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이 운영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나.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8.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제주시 및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행정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7. 그 밖에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례 제12조 1항에 의하면, 도 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우선 명시하고, 2항에서는 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기관으로 제주시센터와 서귀포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14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서는 법인으로 운영, 비영리법인에 위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현해경외(2020)의 연구에 의하면 도와 행정시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여러 활동들(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긴급지원, 네트워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광역)와 행정시(기초)의 자원봉사 센터들 간의 수직적 수평적 기획 조정 역할의 미비, 기능과 역할의 중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원봉사 운영체계상 문제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업무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문제점으로, 도센터와 행정시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유사함(사업 중복성, 예산 낭비 문제)

- 셋째, 센터 근무 직원의 고용 불안 문제로, 센터장은 명예직 비상근 시스템이지만 전반적 업무 출괄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고, 업무 결재 및 행사 참여로 거의 상극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게 조정된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있지만 승진과 고용 보장 등과 같은 문제로 이직이 다수 발생

- 넷째, 단기 사업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성과평가 때문에 단기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하지 못하거나, 특화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다섯째, 센터의 자원봉사 사업비의 부족으로, 센터의 대부분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여서 실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2020년 기준 제주시-전체사업예산의 6.5%, 서귀포시-전체사업예산의 12.2%)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여섯째, (가칭) 자원봉사센터의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매년 단기사업을 발굴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적 한계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타시도의 자원봉사센터들은 운영 주체를 비영리 임의단체 체제에서 벗어나 법인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제주시센터와 서귀포시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체제 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논의(운영체계개편을 위한 공론화 장)가 필요함

- 여덟째, 소통창구의 부재로, 현행 운영주체인 자원봉사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간 소통과 논의구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긴장 요소가 팽배하여 서로 편견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법인화 문제 및 센터장 상근직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내외부 소통부재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제주도내 자원봉사활동 단체 대표자 200명 표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활동 및 지원, 협력에 대한 가항, 자원봉사협의회 및 센터 역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조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금(예산) 마련이 어렵다’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지원(교통비, 식사비 등)의 증액’이 43%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위로 ‘자원봉사활동가에 대한 생활문화 혜택 지원 확대’가 26%로 나타남
 - 현재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가 46.5%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위로 ‘자원봉사자들과 연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할 수 있다’가 27%로 나타남
 -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39.5%, 다음 순위로 ‘예산 지원’ 24.5%로 나타남
 - 현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질문한 결과, ‘이루어지고 있다’ 33%, ‘이루어지지 않는다’ 25.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은 어느 조직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34.5%, 제주특별자치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19.5%,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16.5% 순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조직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질문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혼합형(행정+민간 협력체제)’ 38%, 행정시의 직영체제 22.0%, 제주특별자치도 직영체제 18.0% 순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역할 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7.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21%,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19% 순으로 나타남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9.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25%, ‘제주시 혹은 서귀포시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협력’ 9% 순으로 나타남
- 현해경외(2020)에서 현황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핵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번호	운영주체	운영형태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현행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분리 없이 현행체제 유지
2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제주도 직영으로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를 두고, 센터 운영
3	각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만을 법인화하고,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안으로 귀속 체계화되는 구조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간의 완전 통합과 명칭 변경
6	각 자원봉사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화

자료: 현해경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p.160

III. 나가며

- 도-행정시 자원봉사센터는 개별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반면, 현행 운영주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광역-기초 센터간 연대, 협의-조정 역할의 미흡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타 시도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 센터들의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적으로 운영주체의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사무기능의 배분 및 역할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기본전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오윤정외(2020)의 연구에 의하면 복지사무 기능의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기본전제로 첫째,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견지, 둘째, 행정시의 복지자치권 강화 및 공적 책임성 강화, 셋째,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설정하였음
-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공적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사무배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위기관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실행업무)는 하위 기관이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도 행정시 자원봉사센터를 도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명시함에 따라 하위기관인 행정시 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실행 업무는 행정시 사무로 설정하고, 도

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기획-조정업무),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시 센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정시 관내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 관련한 논의는 타시도 사례를 고려한다면 선제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일하게 운영주체를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3가지(법인화, 법인위탁,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 우선 유일하게 광역단위에서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센터의 자체 법인화가 필요해 보이긴 하나, 제주도는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도-행정시 동시에 개별 법인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행정시 센터 관계자, 행정 담당자, 유관기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뉴노멀 사회에 대응한 자원봉사 고도화를 정책 특성으로 삼고 있음
- 이에 따라 도-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연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판단되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임
-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인류가 지녀야할 선한 덕목으로서, 가깝게는 주변 이웃부터 국가 서비스의 보완, 나아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하는 시민사회운동임.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민간-연구기관의 영역을 넘나드는 협업이 요구됨

<참고문헌>

오윤정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제주연구원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2018), 2018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학회(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현혜경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오윤정

행정학박사
 관심연구주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 사회보장정책 개발, 기업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現)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및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사(2019. 3-현재)
 현)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비영리조직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정희선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이사회 구성과 역할

비영리조직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법적 구성요건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재정적 책임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불가결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이하 한자문)의 경우, 전신인 볼런티어21의 창립에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창립 추진주체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자문의 초기 이사회는 크고 작은 사안의 의사결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자문이 차츰 성장하면서, 사회적 위상과 그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재정적 안정 등을 위해 명망가나 후원자 성격의 이사를 영입하기도 하였다. 사실, 단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재정적 영역과 경영, 홍보나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실무역량은 절실하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실무자로 채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실무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한자문에서는 단체의 비전이나 방향을 잘 이해하는 명망가나 후원자 뿐 아니라, 비영리 계통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대표급 인사,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면서 자원봉사관련 전문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회계나 IT 분야 등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이사로 영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자문에서 오랫동안 회원이나 자문위원 활동으로 기여하셨던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단체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의 역할

이사회의 잠재 역량을 조직의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사업 수행의 추진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사무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자문 사무국은 신입 이사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사들이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 및 사업 전반의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는 한자문의 조직 및 재정 구조까지 포함하는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여, 각 부서별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사들이 한자문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일은, 이사의 한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구체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관련 이사가 직접 참여하거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기업의 전략팀에 몸담았던 이사는 한자문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서 검토와 컨설팅은 물론 기업과의 협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현재 한자문은 모금 전문가를 이사로 초빙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모금 활동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프로보노 풀의 사회적 구축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무, 전산, 홍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인프라 여건은 기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향후 점점 늘어날 비영리조직의 전문성 신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더욱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비영리조직이 발전한 해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원봉사 분야에 “프로보노”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비영리조직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프로보노 풀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의 전문가를 이어나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조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러한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단체가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접촉하고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된 프로보노 풀에 모든 단체가 접근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말이다. 

- 본 란은 한국자원봉사문화에 실린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

봉사센터 운영방식, 談論의 장 필요



강문상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들어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1365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만여 명으로, 재난·재해 현장 복구를 비롯한 소외계층 돌봄, 각종 축제 현장이나 체육행사 뒀안길에도 어김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아니 스며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道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하여 제주시자원봉사센터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등 3개 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가장 먼저 설립된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년이, 2005년 5월에 설립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17년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3개 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를 제주연구원에 의뢰한바 있으며, 용역 결과는 2020년 12월에 제출되었다.

연구 용역에서는 발간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자원봉사센터들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센터들의 운영방향과 미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역 봉사센터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정책진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공론화 과정 없이 사장(死藏)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제주지역 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얽힌 여러 환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법령에서 서술한 대로 밝히면 ①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 ②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③지방자치단체(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센터를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에는 순수 센터를 민간법인으로 하는 경우와 민 + 관으로의 혼합형태가 있으며,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운영방식이고, 세 번째는 직영 형태

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타 기초자치단체 센터는 혼합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첫 번째 방식인 센터를 법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방식인 비영리법인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세 번째 항목인 관 직영체제방식을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를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이나 법인 형태로 ‘민간화’ 하겠다는 개정안을 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이었는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다.

아무튼 제주의 경우에는 3개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되면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운영해 왔다. 이 같은 행위를 굳이 비유했을 때 센터장은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 사무처(국)장은 부기장, 직원들은 승무원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는 이를 운영하는 경영회사인 셈이다. 다만, 이익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비영리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민간위탁조례가 자주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은 2년마다(현행 3년)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 왔으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도의회 보고 - 동의 - 보고 - 동의 절차와 재계약 - 공모 - 재계약 - 공모 절차로 반복해 왔다.

어쨌든 제주지역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2022년 11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가) 제안발표는 누가 할 것인가?

제주지역 3개 센터를 운영할 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가 선정돼 운영해 왔으나 올해 12월 말일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공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 사무국 직원과 현재 운영법인과 종속관계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운영법인이 응모할 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도 응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누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누가 제안 발표할 것인가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운영법인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는 도 센터장이 겸직이었던 사무처장 외에는 사무처(국)가 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문제이므로 다음 공고 이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나) 센터장의 엇갈린 임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기준은 엄격하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선정방식은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3항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센터장의 선임)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새롭게 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센터장의 남은 임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잔여 임기 보장을 원칙으로 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도 언젠가는 협약기간과 맞춰야 깔끔하다는 생각이다.

사무국을 둘러싼 환경도 고민이 필요할 때

가) 사무국 조직(정원) 정비 서둘러야

어느 기관이든 임원과 사무국의 정원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하다못해 친목 단체도 정관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등 조직이 규정돼 있다.

흔히들 T/O(정원)가 있어야 채용하든, 승진하든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는 T/O(정원) 없는 현원이 존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참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정원과 관련한 법령도 살펴보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 정원은 ①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3항²⁾에는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②시행령 제14조 3항³⁾에서는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③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5조 제2항⁴⁾에서는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었던 것에서 2022년 6월 30일 개정을 통해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며 사무국의 정원은 뺀 채 센터장의 임기 등으로 개정했다. ④사무국의 정원은 최종 조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아니한 채 2022.6.3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규칙 제2조 제2항⁵⁾ 개정을 통해 센터 자체 운영 규정으로 위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센터 조직(정원)에 관한 법령 위임 형태를 살펴보면 ①법은 시행령으로 → ②시행령은 조례로 → ③조례는 규칙으로 → ④규칙은 운영 규정으로 무려 4단계나 위임하고 있다.

어찌 되었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6. 30 규칙 개정을 통해 센터 조직(정원)을 운영 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공은 센터 운영 규정을 관장하는 도 센터 사무처로 넘어왔다.

도 사무처에서 혹여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시달한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침에서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표*가 있으니 별도 조직(정원)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이 표는 조직(정원)을 정할 때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표

구분	인규 규모	상근인원 최저기준			
소도시형	5만 이상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5명 이상			
중도시형	10만 이상 20만 미만	8명 이상			
대도시형	20만 이상 35만 미만	특별시광역시	9명 이상	도 지역 일반시	10명 이상
	35만 이상 50만 미만		10명 이상		11명 이상
	50만 이상	12명 이상			

나) 사무국 직원, 정규직 VS 비정규직

센터 사무국 직원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의 질문을 직원들로부터 간간이 받을 때마다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필자는 단연코 말하는데 센터를 법인화하여 운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비영리법인에게 협약 기간까지만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종료될 경우 새로운 위탁방안은 집행부 또는 지방의회로부터의 여러 절차(보고-동의)를 거쳐 공모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 방안에 따라 사무국 직원 운명도 좌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규정 등에서 사무국의 직원 고용승계 원칙이 있어 법리 다툼은 여기에서는 논외하기로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2019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임용기간)⁶⁾ 개정을 근거로 수탁기관 협약종료는 물론,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새 수탁기관의 장과도 아무런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이전의 수탁기관이 공모를 거쳐 재선정되었다 하여도 엄연히 새로운 수탁기관이며, 따라서 새로운 수탁기관의 장과 근로계약 재체결은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또한, 필자는 제10조 조문이 ‘임용기간’임에도 내용에는 엉뚱한 정년을 논하고 있는 것도 개정했으면 한다. 아마 공무원 정년까지는 수탁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없어도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위·수탁 협약 기간이 2년이라면 2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정년이 도래하는 자는 그 잔여기간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조문도 ‘임용기간 및 정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참에 개정을 주장한다.

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가, 복무제도 등 세부 운영세칙 서둘러야

사무국의 직원은 평생 한자리에서 근무함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10년, 20년 근무해도 근속승진제도 하나 없는 직장에서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도 무리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시달한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침에서는 인근 센터끼리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을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의 이러한 권고를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돌아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거니와 고민조차도 없었다. 당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무국장이나 팀장급부터 교차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센터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센터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또한 평가 이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가 없다. 예컨대 공직자의 경우 연 두 차례 평가에 따라 승진제도에 활용하거나 다음해 성과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센터의 경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없어 평가를 한다 해도 유명 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과급은 차치해 두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는 반드시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렬 6급까지의 근속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7급까지 도입한다 해도 그 수가 많지 않아 연 1백여만 원 안팎의 상향된 위탁금만으로도 충분히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센터 사무국에 대한 복무, 징계제도를 아우르는 세부 인사규정을 서둘러 마련하여 센터 사무국에 대한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초안된 13종에 이르는 운영세칙도 이참에 서둘러 확정해 주었으면 한다.

센터 운영방식, 담론을 거쳐 최적의 방안 고민할 때

가) 전문가 견해를 통해 본 민영화 방안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구혜영 교수는 칼럼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은 이제 법에서 규정할 시기는 지났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자원봉사센터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위탁이나 법인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감시하는 시스템 즉,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제주연구원 연구성과물, 담론(談論)의 장 필요

제주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0년 12월)’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인다.

총 233쪽에 달하는 용역 결과보고서는 제1편 연구개요 - 제2편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특성과 환경 변화 - 제3편 자원봉사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 - 제4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문제점 - 제5편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사례조사 및 시사점 - 제6편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원봉사센터 조사 분석 및 시사점 - 제7편 심층조사 면접 및 전문가 FGI 결과 분석 - 제8편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으로 끝을 맺고 있다.

결론 부문에서는 센터들의 중요 쟁점 사항으로 ①센터 간 행정간 중요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낮

1) 제16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
 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
 2)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4) ②센터장 및 사무국장·직원의 직급·임기 등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②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10조(임용기간)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정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3.22)

으며 ②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 정책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발생한 중요 쟁점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존 기능과 역할에 안주하여 민간위수·탁 사업에만 매몰된 소극적 활동에 안주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지적하고 있었다.

구조적 논쟁으로 센터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존치 문제, 센터의 재정문제, 사무국의 고용안정성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발전 전략 부재와 행정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내 전담팀 또는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개선방안으로 총 6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주체 방안《제주연구원 용역》

○ 운영주체방안

방안	운영주체	운영형태	내용
1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현행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분리 없이 현행체제 유지
2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제주특별자치도 직영(공무원)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고 운영
3안	각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운영
4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만을 법인화 하고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 안으로 귀속 체계화되는 구조
5안		법인화 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간의 완전 통합과 명칭 변경
6안	각 자원봉사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화하여 운영

끝맺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격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번 평가위원으로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정작 선임했으면서도, 센터에서는 정작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그 법인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보기라도 했느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공모에서 선정되는 기관·단체의장이든 그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나, 제주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에게 우리는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그러한 현상은 왜 발생되었는지,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센터에 몸담고 있는 현직 관리자이기도 하나 이 글의 의견은 센터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다만, 이를 계기로 현행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역설일 뿐이다. 그 방법은 오롯이 치열한 담론을 거쳐 최적의 사회적 합의안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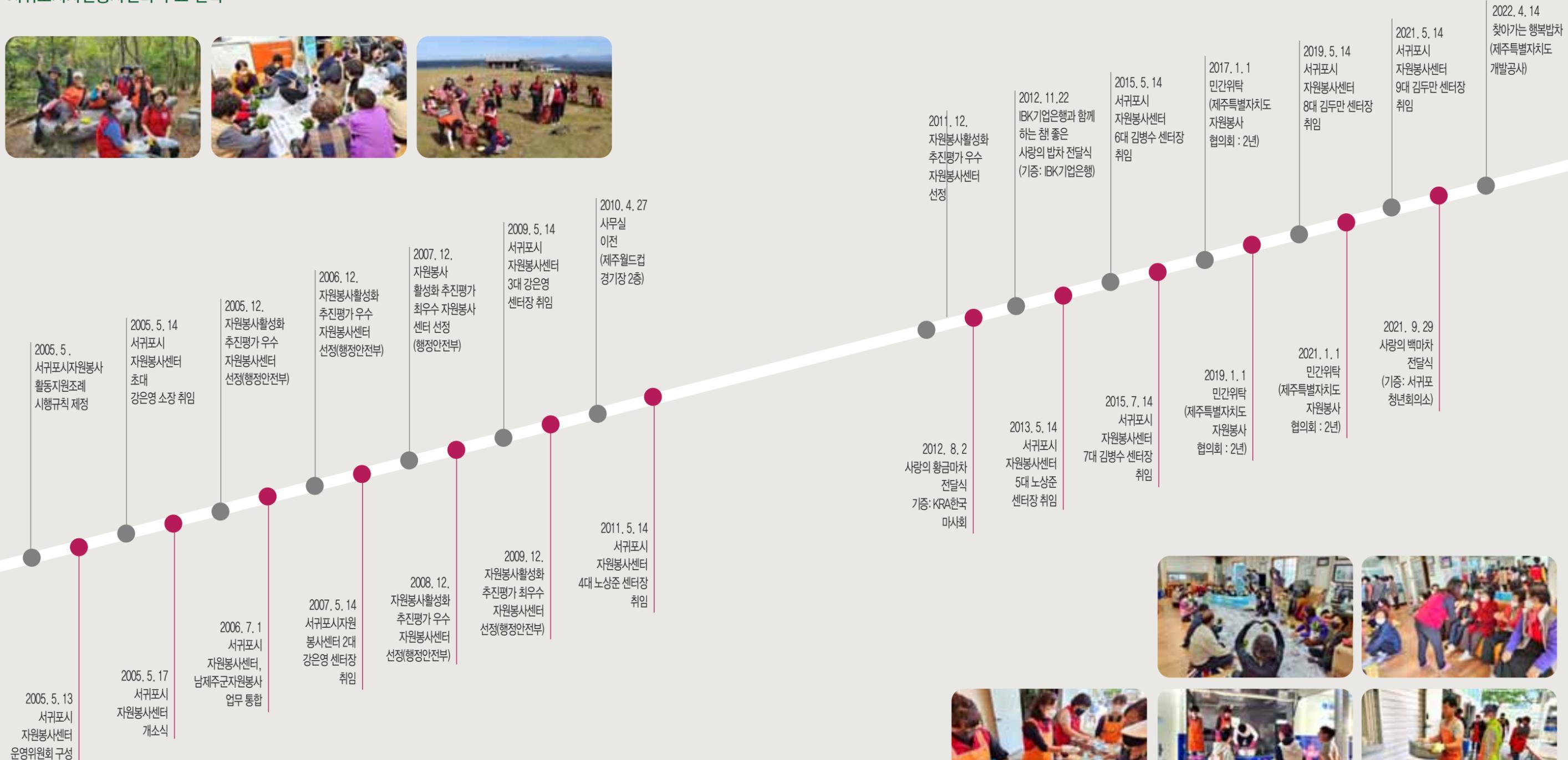
강문상

- 지방공무원 33년 근무(녹조근정훈장 수훈)
- 현) 서귀포문인협회 사무국장
- 수필집 : 그 섬은 말모래기, 공무원의 魂 등 다수
- 교통안전관리자, 자원봉사지도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소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연혁



2005. 5. 13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2005. 5. 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2006. 7. 1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남제주군자원봉사 업무 통합

2007. 5. 14 서귀포시자원 봉사센터 2대 강은영 센터장 취임

2008. 12. 자원봉사활성화 추진평가 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행정안전부)

2009. 12. 자원봉사활성화 추진평가 최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행정안전부)



설립 목적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설립

센터의 역할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상담 교육사업
-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모집 및 개발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정보 수립 및 제공
- 자원봉사 단체·학교·기업·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협업사업
- 자원봉사자 면접 및 배치
- 1365 자원봉사 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 정보 관리·운영
-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 범위

-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재난 재해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문화·예술·체육·관광에 관한 봉사활동
- 인권옹호,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

등록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 활동 실적 누적 관리
- 경력인정 요청 시 언제든지 확인 발급 가능
-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 3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카드발급
- 기타 인센티브 제공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조직도

○ 센터장(비상근)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 총 9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향

비전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서귀포!
미션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핵심가치	전략 목표
섬 김 센터관리자로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서비스 지향	자원봉사센터 브랜드 구축 ○ 특화사업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운영을 통한 센터 브랜드 구축
연 대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자원봉사문화 확산 ○ 네트워크 및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기반 조성
전문성강화 체계적인 관리자 학습으로 센터운영 역량강화.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문센터로 육성 ○ 자원봉사 핵심 인력의 육성과 조직화로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현장중심 자원봉사 활성화의 중심은 현장에 답이 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자원봉사 ○ 밥차봉사, 이동식 빨래방차량,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찾아가는 봉사행정

2023년도 비전 및 목표

비전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서귀포!
주요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 물결운동 참여 확산 2. 네트워크 및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기반 조성 3. 자원봉사 핵심인력의 육성과 조직화로 센터 역량강화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 양성

주요 사업 및 세부 사업	→ 사랑·나눔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운영 ○ 찾아가는 해피투게더 행복밥차 운영 ○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봉사
	→ 코로나팬데믹시대 언택트 봉사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다드림 플로깅 범시민 운동 전개 ○ 봉사하쇼 : 좋은 수다
	→ 자원봉사 물결운동 참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운영 ○ 주민주도형 자원봉사공동체 프로젝트 ○ 자원순환 프로젝트 '함께 투명할래'
	→ 차세대 리더그룹 육성 및 수요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청소년 GO! GO! ○ 청소년 공동체 프로젝트 '아는 것만 물어보살' ○ 가족자원봉사단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단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찾는 자원봉사자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자원봉사 공동체 활성화 ○ 전문자원봉사 발 굴 육성 및 운영
	→ 센터운영 내실화 및 자원봉사자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평가·환류계획 ○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 제19호 '사랑나눔'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운영위원 명단

(임기 : 2021. 5. 14 ~ 2023. 5. 13까지)

번호	지회직위	성명	소속단체명	단체직위
1	회장	김두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2	부회장	강미자	동홍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직전회장
3	부회장	강승호	따사모봉사회	회장
4	부회장	원방식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5	부회장	이경용	서홍새마을금고	이사장
6	부회장	한희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과실행위원장
7	감사	이창용	용흥마을회	회장
8	감사	장순희	바르게살기서귀포시협의회	부회장
9	위원	강형걸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전회장
10	위원	김한영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전회장
11	위원	김효석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직전단장
12	위원	박은숙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13	위원	변봉남	서귀포시 새마을회	회장
14	위원	변정현	어울림 봉사단	초대회장
15	위원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협의회장
16	위원	오창훈	통장협의회	회장
17	위원	유부자	제주안덕로타리클럽	회장
18	위원	이명성	어우렁 봉사단(건축기술 봉사팀)	부회장
19	위원	이영미	대정읍 새마을부녀회	회장
20	위원	이용해	서귀포 JC특우회	회장
21	위원	장홍현	통장협의회	전회장
22	위원	고선심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전)사무국장
23	위원	현인수	누리보듬봉사단	회원
24	위원	고희권	(사)도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25	위원	유영민	서귀포시관광협의회	부회장
26	위원	김현우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지부장
27	위원	김태순	전)중등교직원	전)교사
28	당연직	강창용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과장
29	간사	강문상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특 집

특집 1

기후 위기와 제주 사회적 경제의 역할

특집 2

이 사람 주목!

특집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 소도리' 정책 소개

특집 4

2022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현장 속으로

특집 5

2022 자원봉사 전국대회 현장을 가다

특집(1)

기후 위기와 제주 사회적 경제의 역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탈탄소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사무국 서귀포YWCA) 주관으로 열렸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페트병 및 폐건전지 수거, 헌 옷 및 이불 재활용 등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여기에 토론자로 나선 두 분의 자료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기후 위기 극복과 순환 경제

한정희 · (주)푸른컵 대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구체적이 목표를 세운 이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IPCC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040년 이전에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위기가 아니다. 이상기후로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식재료 원가가 줄지어 상승하고, 이는 2, 3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다. 2019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 퇴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다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있다.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 탈피, 즉,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 경제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원을 너무 헤프게 써 왔다.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성장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자원을 과도하게 추출하고 쓰고 버렸다. 플라스틱의 경우, 1950년 전 세계 생산량이 150만 톤 정도 였지만, 그 양은 2017년 3억 5000만 톤, 2050년에는 34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에는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국 앨런맥아더재단에 따르면, 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 추출 및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에너지가 전체 온실가스의 45%를 차지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의 90%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자원을 추출하고 이용하는 방식의 대변혁이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시급한 이유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신규로 투입되는 천연자원과 폐기되는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경제시스템 내에서 물질을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순환경제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생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산업 간 자원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경제나 대여,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을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포착된다. 순환경제는 자동화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경제 구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 간 정보 교환 및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도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확대, 즉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환경’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문제를 반영해 환경, 문화,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의 중심은 여전히 취약계층 고용으로, 새롭게 진입한 다양한 미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초기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다. 지원제도의 평가지표 및 사회적 성과 측정(SVI)에서도 고용과 사회 서비스가 필수 요소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탄소 저감이나 자원순환 같은 친환경 성과 역시 지표로 포함하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의 필요조건을 확장할 수 있다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미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국의 데이비드 라미 하원의원은 사회적기업들에 기후정의를 미션에 포함시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역의 순환경제 전환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도록 이끌기 위한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순환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며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 모임이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 내에도 환경 기업을 표방하며 활동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갖는 사회적 경제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모아 규모 있게 임팩트를 만들고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제주네트워크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들이 환경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해, 시민사회 및 제주도정과 협력해 공동 캠페인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연대하는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일회용품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회용 컵 대여 등 사업을 진행하는 푸른 컵 역시 제주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재사용을 통해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기후위기와 제주 사회적 경제의 역할

김석 ·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서론

남방 큰돌고래 동해안에서 발견, 동해안 명물 명태 러시아 극동 해역으로 서식지 이동, 참다랑어의 국내 어획량 증가 등으로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를 발견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바다 속 해조류의 대량 소멸 현상이 진행 중이고 툫, 모자반, 감태 등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수온 상승과 바다 오염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구상나무 숲이 있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80% 이상이 고사, 제주에서만 4억 마리가 사라진 꿀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지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언급되어왔다.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 도정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101개의 핵심 과제 중에서 36번부터 43번까지 생태환경, 지속 가능 제주,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2050 제주지역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마을 지정 운영 등 제주도민의 의견과 전문가들 참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도민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과 사회 경제 구조의 원활한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정책

도정 26번 과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제주특화 사업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제주도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

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따르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
2.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이행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시행
4.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6.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와 협력
7. 기후 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고 협력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발제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민 · 관 거버넌스까지 폭넓은 분야까지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5. 제주도의 탄소 중립 · 녹색성장 정책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

제주도의 탄소 중립 ·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 안에서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대한 학습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따 로 접근하기보다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선진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제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모든 행위자들의 사회적 경제다움으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제주도 전체 총생산량에 0.34%이고 종사자 수도 제주도 전체 사업체 대비 0.42%에 불과하지만, 매출 규모에 비해 고용효과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행위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공유와 교육, 기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관광 촉진, NO 플라스틱 선언과 합의, 제로 탄소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집(2)

주목! 이 사람

우리 사회는 봉사를 실천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리라.

서귀포신문에서는 그들을 발굴하여 '칠십리 이웃들' 이란 코너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데 본 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소개한다.

《협조 : 서귀포신문》



쓰레기 줍는 여경(女警)의 서귀포 사랑 이야기

박미정 경사 · 중문파출소

'서귀포 줍줍이' 라는 별명을 가진 중문파출소 박미정 경사. 그녀의 고향은 강원도 인제이다. 첩첩산중에서 자란 그녀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끔 보는 광활한 파란 바다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20대 후반 나이에 경찰공무원이 된 그녀는 바다를 보고 싶어 작년 초 춘천에서 사면의 바다가 있는 제주도로 전근하게 된다.

박 경사는 어린 시절 계곡에서 깊은 물 속 잠수를 잘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그녀에게 해녀가 되어 보라고 했다. 그녀는 경찰공무원도 꿈이었지만 해녀가 되어 바다를 누비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다.

작년 초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 박 경사는 서귀포 생활 몇 달 후, 법환 해녀학교에 입학했다. 18주 해녀 교육을 받는 동안 초보 해녀 박 경사는 빨소리, 성계를 잡기도 했다. 그런데, 바닷속은 생각과 달리 백화현상으로 인해 해초가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낚시 줄, 캔, 병 등의 쓰레기들이 보이기도 했다.

박 경사는 물질할 때도 캔과 병 등의 해양 쓰레기를 테왁에 집어넣고, 돌 틈에 끼인 낚시줄을 떼어 냈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녀에 대해 친구 해녀들도 무관심했지만, 나중에는 그녀를 따라 해양 쓰레기를 줍고 나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하는 쓰레기 수거량이 많아졌다. 혼자 처리 하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는 마을 해녀분들이 쌓인 해양 쓰레기 처리를 도와줬다.

몇 달간 초보 해녀로 해양 쓰레기 줍기를 하고 나서야, 박 경사는 해양쓰레기는 염분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효율적인 쓰레기 줍기를 위해 해양 쓰레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녀는 비영리 단체인 플로빙코리아에 가입해 토·일요일 중에 하루 제주도를 돌며, 해양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잠수 기술도 배우고 바닷속 구경도 했다.

작년 말 어느 날은 보목마을 구두미 포구 앞 해양 쓰레기 줍기에 나섰다. 회원들과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 근처 해안가를 둘러 보았는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생기는 뿌듯함도 잠시, 해안가에 해양 쓰레기가 끝이 없이 보였다. 박 경사는 아름다운 해안가를 보고 싶어 퇴근 후, 구두미 포구 앞 해안가 인근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밀물일 때는 바닷속에서 썰물일 때는 육상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루 쉬는 날에는 온종일 해양 쓰레기를 주울 때도 있었다. 때론 큰 바위에 끼어 있는 대형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떤 날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마을 분이 다가와서 "무엇 하고 있냐?"며 화낼 때는 상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도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마대로 하루에 5~6개가 됐다.

몇 달간 구두미 포구 인근 쓰레기 줍기로 이 인근은 깨끗해져 박 경사는 흐뭇했다. 요즘은 가끔 새로운 해양 쓰레기가 있나 이곳을 점점 청소하는 정도이다. 하루는 예래동 일대 해안도로를 달렸다. 이때 바닷가를 바라보았는데, 이곳 해안가에 길게 늘어진 해양 쓰레기가 보여 논짓물에서 하예포구까지 해양 쓰레기를 다 줍기도 했다. 올해 그녀는 50회 이상 해양쓰레기 줍기에 나섰다.

박미정 경사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버리는 분들도 검은 돌 위에 쌓인 해양 쓰레기가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라면서 "바다가 있는 제주도가 너무 좋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서귀포 바다를 계속 보고 싶어 쓰레기를 계속 치워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서귀포를 못 떠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가 좋아, 봉사가 너무 좋아

송영순 ·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달 26일 혼인지에서 다문화가정 사랑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이날 가정을 꾸민 네 쌍의 부부는 행복했다. 결혼식에서는 성혼선언문 낭독에 이어 송영순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부모님 덕담을 위해 단상에 섰다.

송영순 회장은 “없는 것을 탐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라며 조언했다. 이 행사는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주최했는데, 올해 송영순 회장이 서귀포시에 가입된 10개의 여성 단체 협의체 기구인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소비자교육 중앙회 서귀포지부 수장이기도 한 송 회장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없어져 제주시로부터 최근 발생하는 고발사례 등을 문의해야 해서 무척 아쉽다고 한다. 그러더라도 소비자교육 중앙회 서귀포지부는 소비자교육 사업에 치중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사랑의 밥차와 동선을 같이해 어르신들을 만났다. 이때 약품 등에 대한 불법 방문판매에 대해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줬다. 이곳을 송 회장이 재방문하면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무척 보람을 느끼곤 했다.

송 회장은 61년간 서귀포를 사랑해 서귀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서귀포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이 나들이하게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 유채꽃 잔치 등 축제와 김정문화회관 등에서 안내 자원봉사 등으로 서귀포를 알렸다.

특히, 그녀는 여러 봉사활동을 했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는 7년 전 안덕면에서 열렸던 국제철인3종경기 자원봉사라고 한다. 외국인들도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였는데, 연이어 수영·사이클 마라톤 순으로 경기가 열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구간마다 봉사자들은 대기해 간식과 물 등을 선수들에게 지원해야 하고, 사이클 번호 부여 등을 했다. 선수들은 지친 몸으로 경기하는데, 뭔가 생가대로 안 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이때 송 회장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 와중에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그날의 피로가 풀리게 했다.

송영순 회장은 “서귀포시는 아직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단체가 800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서귀포시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서귀포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한 사람들이 나는 좋다. 이것이 내가 서귀포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서귀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봉사’

강순미 · 드림기획 대표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전. “반갑습니다. 오늘 신나게 파이팅해요”라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다. 이어 “양손 머리 위로 올려, 허리를 둥글게 돌려”라는 목소리가 경쾌한 음악과 동시에 퍼지며 어르신들이 밝게 웃었다.

매주 화요일이면 ‘사랑의 밥차’는 어김없이 매일올레시장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린다.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긴 줄.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강순미 드림기획 대표가 나섰다. 이벤트 사회자인 강 대표는 9년째 매주 화요일에 사랑의 밥차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체조, 율동 등으로 즐거움을 주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10여 년 전 강 대표는 우연히 사랑의 밥차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강 대표가 체조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능기부를 하는 계기가 된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앞에 서는 재능기부를 쉽게 생각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은 너무 일찍 찾아 오는 듯했다. 현재 9년째인 재능기부는 봉사라지만 강 대표 자신의 일이 된 지 오래다.

행사 사회자인 강 대표는 자리돔 축제, 쇠소깍 축제, 사계 예술제, 논짓물 축제 등을 여러 해 진행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강 대표는 그들 중 심성이 고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권유하기도 한다. 또한 4년 전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기 위한 봉사단체인 '삼성-나, 너, 우리 봉사단' (이하 삼성 봉사단)을 결성했다.

삼성 봉사단(단장 서연문)은 3년째 추석 차례상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강 대표는 작년에는 강정동에 있는 독거노인에게 추석 차례상을 전달했는데, 올해도 그곳을 찾은 강 대표는 자신을 알아보고 고맙다는 어르신이 반갑기도 했지만, 작년과 달리 싱크대도 바뀌고 새로운 벽지로 어르신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마음이 가벼웠다.

삼성봉사단은 몇 년 전 보목동 해안가 모자반 제거 환경정비를 실시했는데, 적은 인원과 짧은 봉사 시간에도 200포대 모자반을 수거한 적도 있다. 또한 고령 농을 위한 대정지역 마늘 수확 봉사를 해 농가에 일손을 덜어줬다. 이는 남에게 보이기식 봉사보다도,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는 강 대표와 회원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사무대에 섰던 강 대표는 어머니는 봉사하는 딸인 자신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강순미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재능기부를 위해 사랑의 밥차를 찾는다. 그런데,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겸손해진다”라면서 “언제나 사랑의 밥차는 한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맞이하고 있고, 나만이 아니고 많은 분이 봉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주말에 일해 화요일에는 목을 쉬어야 하지만,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 목소리가 커진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다”라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큰사랑, 나의 기부는 소중

민왕건 · 아이뷰티스토어 대표



“센터장님, 오늘 센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수박 보내 드릴 테니, 아이들과 수박 파티하세요”

2년 전 육지에서 서귀포 신시가지로 이사 온 민왕건 아이뷰티스토어 대표. 집 인근 마트에 가족과 방문했다가 싱싱한 수박이 보여 비전아동 센터에 수박을 전달했다. 민 대표는 1년 넘게 과일뿐만 아니라 매달 20만 원씩 비전·샘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서귀포로 이사 후 몇 달 지나 우연히 강정동 샘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센터에 성금을 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민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 대표의 기부는 아내 사랑에서 시작됐다. 러시아인 아내와 10년 차 결혼 생활 중인 민 대표는 아내가 출산하고 힘들게 양육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때 문득 민 대표는 한부모가정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는 민 대표가 9년 전부터 한부모가정에 기부금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된다.

민 대표는 신혼 초 살림이 그리 넉넉하진 못해 월세살이했다. 이러해도 아이를 키우는 아내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자꾸 생각나 기부를 멈출 수 없었다.

서귀포시에 이사 올 당시, 민 대표의 사업은 그리 잘 풀리지 못했다. 어느 날 눈 덮인 한라산을 10시간 넘게 등산했는데, 그 이후 신기하게 사업은 순항했다. 그리하여 경제적 여건은 더욱 호전됐다. 이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기부하려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기부금을 전하고 싶어 가입을 철회했다.

민 대표는 30대 후반의 젊은 사업가이다. 앞만 보며 달리는 사업가와 달리, 민 대표는 1년 7개월간 현재 서귀포지역 2곳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20만 원 기부, 수년간 4곳의 한부모가정 후원금 기부, 8곳의 한부모가정에 3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민왕건 대표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색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누군가에게는 고액이 되어서이다”라면서 “훗날 기부도 누군가에게는 고액이 될 수 있어서 나의 기부는 소중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선행의 좋은 느낌이 전파되어, 경쟁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며 미소 지었다. 



봉사에 인생 전부를 바친 이 사람의 이야기

이창용 · 모다드령 봉사단 단장

서귀포에 은퇴 이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와 연관된 활동으로 보낸 사람이 있다. 서귀포시 용흥마을 직전 회장을 지낸 이창용 씨(66) 얘기다.

이창용 씨는 2006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할 당시, 사무국장에 선임됐다. 이후 2017년 퇴임할 때까지, 서귀포시 자원봉사 활동을 엮고 분배하는 일을 총괄했다.

이창용 국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순발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다드령 봉사단’을 결성했다. 센터가 봉사활동이 필요해서 단체에 요청하면, 절차적 과정으로 단체가 활동가들을 파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모다드령 봉사단은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같은 단체다.

이창용 씨는 지난 2017년 센터 사무국장 업무를 사직했다. 퇴직 이후 감귤농사가 주업이 됐는데, 생활은 센터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분주해졌다.

우선 퇴임한 이듬해 1월, 용흥마을회장에 취임했다. 임기가 2년인데,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연임하는 바람에 2021년 12월까지 꼬박 4년 동안 마을회장 업무를 봤다.

이창용 씨는 “내가 용흥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청년회 활동도 했다”라며 “마을이 어려우므로 회장 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내가 맡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씨는 마을회장 일을 하면서도, 센터 사무국장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모다드령 봉사단’ 단장을 맡아 활동하는 게 대표적이다.

모다드령 봉사단은 이창용 씨가 센터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결성했는데, 이 씨가 퇴임한 이후 센터는 봉사단 단장을 맡아 주라고 요청했다.

모다드령 봉사단은 46명으로 구성됐는데, 원칙적으로 활동에 드는 비용 전액을 자체 회비로 충당한다. 음료수를 마시거나 끝나서 식사하는 것도 모두 회비로 한다.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서귀포 지역 올레길이나 하영올레 등에서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데, 센터가 필요할 때는 이와 별도로 언제든지 활동에 참가한다.

이창용 씨는 그 외에도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사무국장을 10년째 하고 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단체와 수요 가정을 연결하는 일도 돕고 있다.

이창용 씨는 “어떤 날은 하루에 머리를 세 번 감을 때도 있고, 옷을 서너 차례 갈아입을 때도 있다”라며 “하루를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니, 맡은 일을 할 수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은퇴자들이 시간상으로 가장 여유가 있다”라며 “노인 세대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난 ‘오뎅’ 해질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가한 두 아들 식구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손자가 6명이다. 아들·며느리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손자들은 폐교 위기였던 도순초등학교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다행히 잘 따라줘서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탁구 라켓이 이어준 봉사, 청소년들에게는 정서 도움

오치훈 ·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탁구 봉사활동가

26일 오후, 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데 실내에서 탁구 열기가 뜨겁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다. 서귀포 시내 어린이 15명이 학교가 끝나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모여 탁구를 배운다.

오치훈 씨(48)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크게 수당을 주는 일도

아닌데, 탁구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인데, 벌써 5년째다. 평일에는 초등학생 15명이, 주말에는 중학생 20명이 이곳에서 오 씨에게 탁구를 배운다.

동아리 활동으로 탁구를 배우는 청소년 가운데도 가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를 만나는 일도 있다. 오 씨는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다. 여기서 배운 아기가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클럽에서 활동하면 서도 엘리트 대회에서 우승한 일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 씨는 토평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학교를 대표하는 탁구선수였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선수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라켓은 거의 놓지 않았다. 1992년에 주변 사람들과 뜻을 모아 서귀포탁구동호회(회장 진동수)를 결성하는 일에 함께했다. 동호회에 회원이 꾸준히 늘어 많을 때는 60명까지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회원은 30명 수준으로 줄었다. 오 씨는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초보회원이 가입하면 기본자세를 가르치는 일도 오 씨의 몫이다.

오 씨는 “우리가 일호광장에 동호회 연습장을 마련했다”라며 “회원들은 거의 매일 그곳에서 연습한다”라고 말했다. 동호회는 회비를 모아 연습장 임차료를 지급한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은 탁구동아리 회원과 탁구를 좋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달의 탁구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의집 2층에 있는 테이블 두 대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 오치훈 씨가 서귀포탁구클럽 회원들을 설득해 동아리 연습장을 행사에 사용하도록 했다. 동아리의 배려로 청소년문화의집은 매월 더 많은 청소년을 탁구잔치에 초대할 수 있게 됐다.

오치훈 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탁구를 배워야 나이가 들어서도 클럽 활동도 하게 된다”라며 “어려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탁구가 보기보다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뇌와 정서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탁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어려운 곳을 찾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랑’

김신민 ·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담임목사



버스를 타고 서귀포여중 입구를 지나서 걸매공원에 이르기 전 차창 너머로 3층 건물인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가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교회 앞 작은 마당에서는 나눔등지 봉사회가 오픈 장터를 열어 나눔이 이뤄지곤 했다.

나눔등지 봉사회는 13년 전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분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조직됐다. 현재는 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봉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는 몇십 년 동안 서귀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3년 전 지금의 장소인 서흥동으로 교회를 이전해도 나눔등지봉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서귀동 주민들은 서운해하지 않았다. 이때 나눔등지 봉사회는 지역에 필요한 봉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했다고 한다.

나눔등지 봉사회는 교회에서 시작돼 선교를 위한 봉사회가 아닐까 하는 지역민의 생각을 떨쳐야 했다. 봉사회는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마당에서 2개월에 한 번 교인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장터를 열고 라면, 장난감, 헌옷 등을 싼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장터를 열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봉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서흥동에 협조를 구한다. 서흥동 추천으로 매달 한 번씩 지역 내 취약계층 30명을 위한 죽·떡·반찬 나눔의 기회를 얻었다. 올해 6월에도 봉사회 회원들이 죽·떡·반찬을 만들면, 원불교 봉사단체 회원들은 취약 계층에게 음식을 전달했다.

김신민 예수재림교 서귀포교회 담임목사는 “몇 년 전 봉사회 회원들이 중앙동에서 열리는 사랑의 밥차 봉사를 했었다. 회원들은 받는 것보다 나눔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서 “회원들의 성품과 신앙심이 깊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져 봉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선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 중 교인이 된 분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 말씀을 알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어려운 곳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사랑이다”라며 미소 지었다. 



공무원 퇴직하면 오석학교 교장이 꿈

강충근 · 서귀포시 동홍동 맞춤형복지팀장

서귀포오석학교(이하 오석학교)는 여러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45명의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과 167명의 학생들로 이뤄졌다.

강충근 씨(51)는 동홍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장이자 오석학교 늘푸름반의 한국사 선생님이다. 강 씨는 애월 광지 출신으로, 2004년 4월에 은평구 응암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강 씨는 서울에서 있을 때도 응암동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2006년에 교류로 제주도로 내려와 서귀포 시청에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강 씨는 여성가족과 아동 담당이었는데, 청소년 담당과 친했다. 그때는 오석학교가 청소년 위주여서 청소년계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때 오석학교를 처음 알게 된 후 시작한 봉사가 15년째 이어오게 됐다.

강 씨는 여울반의 수학 교사를 시작으로 해냄반(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한 반)의 한국사 수업을 7년 넘게 맡았다가 작년부턴 늘푸름반(중학교 졸업을 목표로 한 반)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강 씨는 “지금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곳이 서귀포에도 있지만, 이전에는 제주중앙중학교에서만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밖에 갈 수 없었다. 당시 다리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휠체어를 버스에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갔다. 그런데 학교에 휠체어가 없고 토요일이라 연동동사무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사장은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직접 업어서 모시고 갔다가 다시 업어서 내려왔다. 그분은 중학교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 씨가 가르치는 늘푸름반에서 올해 10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했는데, 합격률이 60%다. 1점 차이로 떨어진 어르신도 계시다.

강 씨는 “수업 전에 적어도 2시간은 공부하게 된다. 가끔 수업이 있는 날이 공휴일이면 좋기도 하지만, 막상 수업을 나가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는 만족감이 크다”라며 “오석학교에 애정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옆에 많이 계시는데, 좋으신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봉사활동은 퇴직하고 나서도 이어갈 것이고 오석학교 교장선생님도 기회가 된다면 하고싶다”라며 봉사활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쌀 기부 천사 이야기, 생이 다할 때까지 이어질 것

조만기 · (주)조광환경사업개발 대표



조만기 (주)조광환경사업개발 대표(71세)는 2015년부터 매년 서귀포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10kg, 쌀 300포를 기부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고향인 조 대표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어려워져 배고픈 설움을 많이 겪었다. 성인이 된 조 대표는 서울로 상경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 초기 힘든 경영 환경에서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조 대표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다. 조 대표는 1997년부터 익산시에서 쌀을 구입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도 기부는 멈추지 않았다.

조 대표가 처음 쌀 기부를 할 당시에는 200포였는데, 작년에는 용인시에 800포, 익산시에 300포, 서귀포시에 300포, 인천지역 불우이웃에게 200여 포를 전달해 기부한 쌀은 총 1700여 포로 늘어났다. 올해도 조 대표는 12월 1일에 쌀을 예년과 같이 기부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가 고향인 조 대표의 서귀포시와의 인연은 2015년에 표선면 하천리로 조 대표가 이사하며 시작된다. 조 대표는 하천리 집 뒤뜰에 굴나무를 심고 김을 매고, 비료를 주고 커가는 굴나무를 보며 하천리에서 생활한다, 한 달에 7일간의 조 대표의 하천리 살이는 삶의 재충전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 생활에게서 오는 행복을 주기도 했다. 이런 서귀포시가 조 대표에게는 타향 같지 않았다.

조 대표의 슬하에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다. 아버지인 조 대표의 선행을 몇십 년간 지켜봐 온 자녀들은 몇 년 전부터 조 대표의 쌀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조 대표는 결코 자신이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기부한 쌀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더욱 깊다.

조만기 대표는 “사업이 힘들 때도 사업이 성장 중일 때도 사업을 위해 쌀 기부금조차도 아쉬웠다. 이때 10년 갚을 빚을 20년 동안 갚자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라면서 “이는 처음 쌀을 기부 할 당시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와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나의 기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눔은 습관,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김종곤 · 중앙장학회 회장

지난달 15일 서귀포 시내 어느 식당에서 중앙장학회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중앙장학회 회원들은 관광대학에 다니는 희귀병에 걸린 여대생에게 후원하자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매달 15일에 모임을 하는 중앙장학회는 2003년 설립 초기 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데, 김종곤 중앙장학회

회장은 10여 년간 중앙장학회를 이끌고 있다.

30년 전 육지에서 내려와 서귀포 시내에 사업체를 꾸린 김 회장은 지역색이 강해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았지만, 주변 분들의 조력으로 사업은 순항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사업체를 성장하게 해준 서귀포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회 환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이었다.

김 회장은 뜻이 있는 지인들과 좀 더 많은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20년 전 중앙장학회를 설립하게 된다. 처음에는 5명이던 회원이 올해 100명으로 늘었는데, 회원들이 가입하면 탈퇴가 거의 없어서이다. 이는 중앙장학회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보다 여러 경로를 거쳐 장학금이 있어야 하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전달돼 회원들이 그 보람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방학 때면 사업장을 찾아와 일하고 싶다면 기꺼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교사가 되어 고맙다는 편지가 주는 감동은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중앙장학회는 지금까지 서귀포 시내를 중심으로 장학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해왔다. 김 회장은 장학회 영역을 넓혀 성산포와 모슬포에도 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좀 더 많은 학생과 불우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김종곤 회장은 “주위 여러 단체는 나눔을 하는데, 보여주기식 나눔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는 지금까지 조용히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장학회 사업을 해왔다”라며 “이는 나눔의 진정성을 도움을 받는 분이나 사회에 전하고 싶어서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눔도 습관이다.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며 “우리 장학회 100명의 회원은 모두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먼저 호주머니에 손이 가는 분들이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에 설립한 중앙장학회는 현재까지 2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아동센터·대안학교·다문화가정 등에 수천만 원의 성금 지원 등을 했다. 또한 서귀포경찰서와 연계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 [1]

특집(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 소도리’ 정책 소개

지난 10월 4일, 서귀포시청 문화강당에서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이 출범되었다. 이 정책은 기존 인적자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에 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경찰서 등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52개 소의 기관과의 복지 협업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여기에 이 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자료정리 : 오봉주 서귀포시청 주무관》

공공+민간+생활밀착형 업종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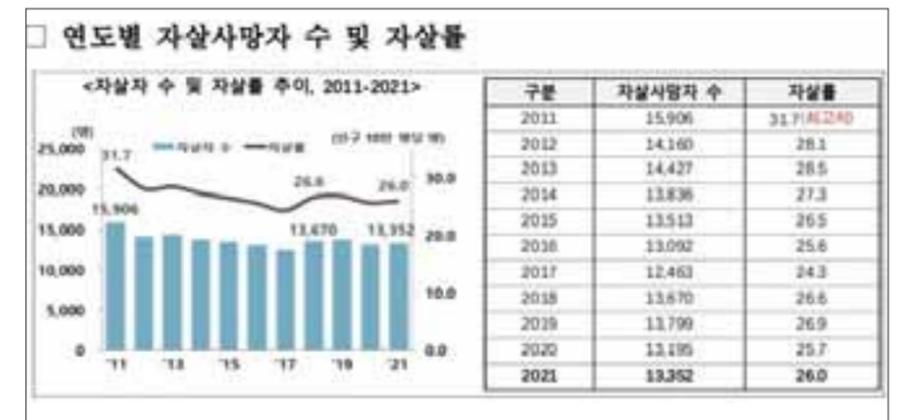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출범

현 실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익숙해지면서, 우리 주변 이웃의 어려움 또한 알기가 어려워졌다. 자영업자, 회사원,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폐업과 실업을 하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과 알코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이와 관련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알코올사용장애자, 즉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2019~2021년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학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6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2020년 204명, 2021년 215명으로 각각 30.8%, 37.8% 급증했다.

이 중에서도 실질적인 고독사로 볼 수 있는 ‘동거인 없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죽음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9명에서 2020년 90명, 2021년 110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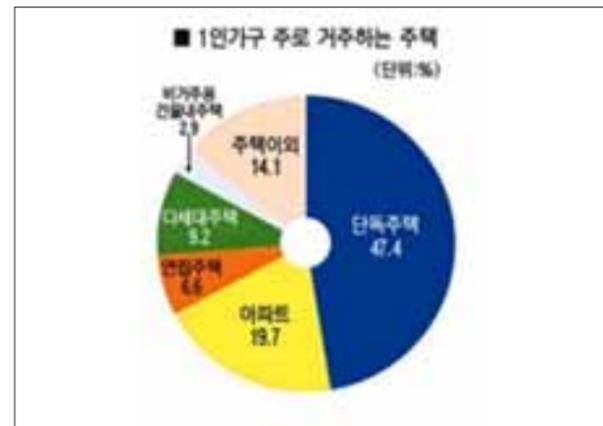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30.4%, 59.4%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도 수치만 보면, 알코올사용장애로 숨진 환자의 51.2%가 고독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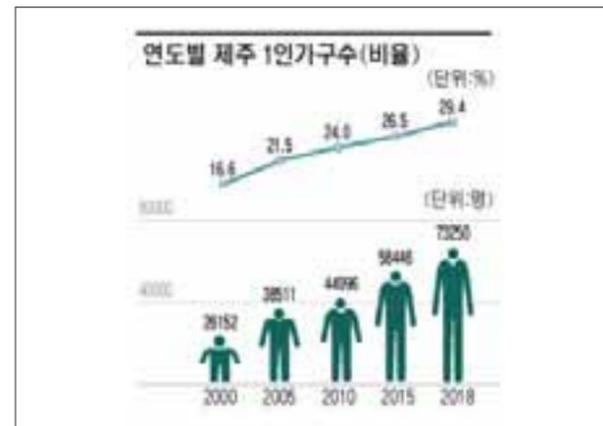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6월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 위험군은 2019년 3.2%에서 16.98%로 5배나 증가했다. 자살 생각률도 같은 기간 4.6%에서 12.7%로 3배 뛰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2021년 93만 3,481명으로 전년대비 10.0% 상승했다. 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에도 관련 보도자료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제민일보의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안전망 강화가 필요’라는 기사를 보면, 제주의 1인 가구는 5년새 26.6%에서 31.1%로 증가했고, 20년 이상 장기간 혼자 산 가구가 1만 3,000가구에 달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중도 14.1%로 지난 2015년보다 4.9% 늘어나 주거환경 및 생계 등 위기 사유로 고립되어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올해 10월 31일 제민일보에서도 ‘제주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서둘러야’라는 보도에서도 제주 인구 구성이 1인 가구는 증가하고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2022. 2. 24.(목) 제민일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귀포 희망소도리’ 카카오톡 오픈채널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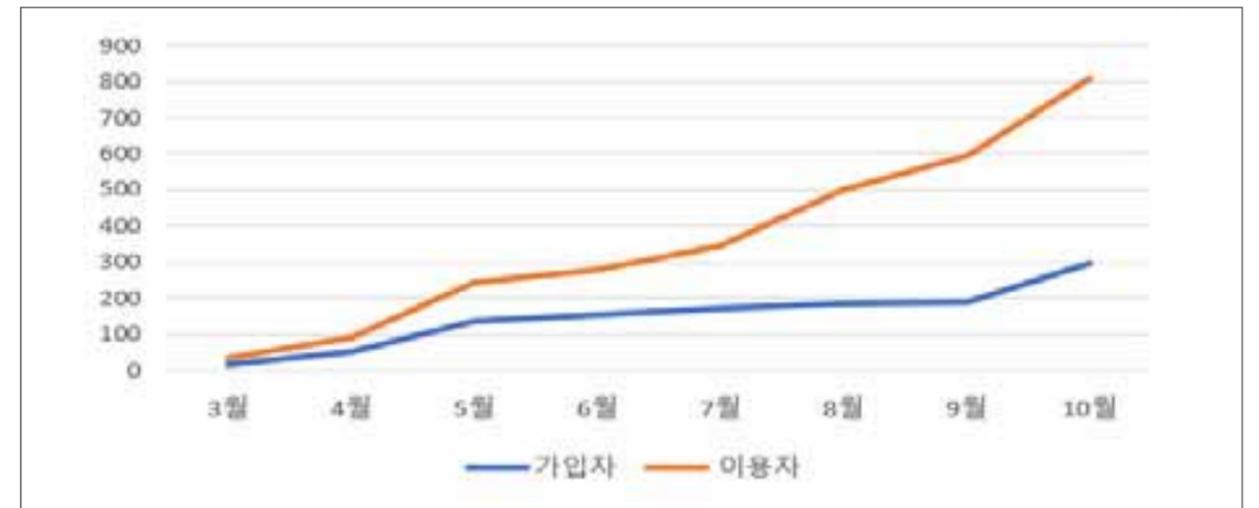
‘서귀포시 희망소도리’는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진 현실에 발맞춰 생활 속 깊숙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올해 초 기획되었다. 시작은 주민 누구나 쉽게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설이었다. 접근성이 용이한 카카오톡 오픈채널을 활용하였으며, * ‘서귀포 희망소도리’란 이름으로 올해 3월 14일 채널 개설하였다.

카카오톡 오픈채널 ‘서귀포 희망소도리’에 간단히 가입한 후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는 플

랫폼이며, 제보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복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채널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담당자가 수시 관리하고 있어, 제보에 대한 신속한 답변 및 연계가 이루어지며, 접수된 내용은 서귀포시 통합사례관리 담당 직원이 상담 후 맞춤 서비스를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채널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317명으로 올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설정한 300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시민 제보 또한 다양한 경로로 32건이 접수되어, 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복지정보물을 매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9건의 복지정보물을 공유하였다.

〈서귀포 희망소도리 가입자 목표 달성〉

* 가입자 목표치: '22년 300명 ⇒ '23년 700명 ⇒ '24년 1,000명



서귀포 희망소도리 이용자 현황(단위: 명)

〈제보 미담사례〉

- ✓ '22. 5월 ○○동, 가구 방입 등 노인학대 제보가 있어, 관련 ○○동 직원이 가구 방문함. 돌봄서비스 연계 및 ○○동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관리 중.
- ✓ '22. 6월 ○○동, 아동 방입 제보가 있어, 서귀포시 사례관리사가 방문 상담 후 사례관리를 진행.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의 학교 결석이 줄어들음.
- ✓ '22. 9월 ○○동,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던 청년이 사망한 가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서귀포시 사례관리사가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연계하여 돌봄 공백 해소.

*주변의 위기가구를 소문내어 희망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의미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출범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사업은 온라인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을 2022. 10. 4.(화)에 출범식을 가졌다.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은 기존 인적 자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에 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경찰서 등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52개소의 기관과의 복지 네트워크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보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의 차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복지 네트워크의 구성을 기획하였고, 지금의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네트워크에 포함하게 되었다.

다양한 스마트 복지 사업의 추진

또한, ‘서귀포시는 희망소도리 발굴단’에 발맞춰 다양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주거비 체납 등 위기 징후 34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기관에서 입수하여, 매년 6차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5,574 가구를 발굴하여 6,93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가족돌봄청년, 중증질환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5종을 추가하여 39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추진 중이다.

두 번째로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서귀포시가 업무협약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대상가구의 전력과 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급감하는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부 확인하는 사업이며, 248명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로 AI돌봄로봇을 활용한 AI안심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AI돌봄로봇은 어르신 1인 가구 173 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복약, 식사시간 등을 안내해주고, 말벗지원, 동영상 감상 등으로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와줘”, “살려줘” 등의 음성인식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어르신의 평상시 대화 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이 서귀포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편의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다가 수도요금 원격검침(스마트 미터링)을 활용한 빅데이터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등 빅데이터 활용 사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



특집(4)

2022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현장 속으로

- 2022. 10. 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봉사자 250여명 참가 -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3년 만에 열린 우리들의 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기대되지만, 여러 지역의 봉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설렘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이날 대회장을 한달음에 찾아와준 지원봉사자 김옥란씨와 이정너씨의 첫마디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코로나19’ 라는 기나긴 터널에 갇혔고 자원봉사 물결마저 멈추고 말았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은 더욱 꺾박해졌고, 봉사자들의 따스한 손길은 더욱 요원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목도 묶였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이대로 모든 시계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대표적 활동이 식료품 키트사업이다.



어르신들에게 매주 꼬박꼬박 한 끼 밥상을 꾸렸으나 거리두기로 모일 수 없어 햇반, 통조림, 사골곰탕과 같은 식료품을 꾸려 어르신들 품으로 직접 찾아가 건넸다. 여기에는 매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팔을 걷고 뛰어주었다.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는 팬데믹¹⁾ 시대를 거쳐 엔데믹²⁾ 시대로 넘어왔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일상으로의 회복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돌아왔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국가 법정 기념일이다. 센터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개소일(5월 17일)에 맞춰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김정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에서 문화행사로 개최해 왔지만 정작 봉사자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보답해주기에는 예산 등의 사유로 역부족이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한 지난 3년 동안은 그마저도 열리지 못했거나 50명 미만으로 간략하게 진행됨으로써 안타까움만 더해 왔었다.

이를 지켜본 김명규 자치행정국장께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곳을 등불처럼 밝혀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1년의 단 한 차례 열리는 행사인데,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라면서 이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상향 편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된 10월을 기점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었으며, 특히 처음으로 봉사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지면을 빌어서나마 김명규 자치행정국장께 고마움을 전한다.

올해 만남의 날 행사는 ‘전지적 봉사 시집’이란 부제를 내걸고 제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2부 자원봉사활동 수기 뽑내기 제3부 재능기부 축하공연 순으로 열렸으며 부대행사로 봉사활동 사진 전시회가 곁들여졌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에서 한평생을 바치다 퇴직한 후 현재는 모다드령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창용 전국장은 “그동안 사진으로 처리된 영상 차원을 넘어 동영상과 내레이션이 적절히 조화된 1년간의 영상물

1)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적 감염병이 대 유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선포하는 최고 등급인 6단계로 이 등급은 1~6 단계까지 나뉩니다. 과거, 팬데믹은 4세기 중세 유럽을 전멸시킨 흑사병, 1918년 전 세계 500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가 설립된 1948년 이후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에는 1986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2020 코로나19 세 차례뿐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티티스토리)

2) 엔데믹(endemic)은 우리나라 말로 풍토병입니다. 요약하자면 특정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화라고 보여집니다. (자료출처 : 티티스토리)

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라면서 폭풍 칭찬을 보내주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김두만 센터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 속에서도 자원봉사 물결은 동만큼은 멈추지 않아 왔다.”라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여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중우 서귀포시장 또한, 축사를 통해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서귀포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이요, 우리 사회의 빛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오현정, 고희열, 이정숙 봉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상기, 강영아, 강혜정 봉사자가 서귀포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강형석 봉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표창을, 김희락 봉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표창을 수상했고, 자연보호 서귀포지회(지회장 변봉남), 제일교회봉사단(담임목사 배성열), 산남금고봉사단(이사장 박성길), 강승효, 고복영, 김미혜 봉사자에게는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제2부 행사는 밥차봉사 때마다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에게 더욱 친숙한 강순미 봉사자의 진행으로 자원봉사활동 수기 뽑내기가 열렸다.

삼다수봉사대(발표 김현우 과장)를 시작으로 동백청년봉사회(발표 강민혁 회장), 양지20봉사회(발표 정묘생 회원), 어우렁건축기술봉사회(발표 김상기 前 회장), 나비봉사단(발표 이영희 홍보분과위원장), 모다드림봉사단(발표 김옥란 총무) 순으로 발표되었다.

수기 경연대회는 랜덤방식으로 꾸러진 청중평가단 50%와 외부심사위원 50%를 합산한 결과 동백청년



봉사단(단장 강민혁)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날 심사에 나선 제주관광공사 현장행 전 본부장(상임이사)은 “모든 봉사단체가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탓에 심사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라면서 “그중에서도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직장과 봉사를 곁들여 봉사에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동백청년봉사단의 스토리가 심금을 울렸다.”라며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곁들여진 12편의 봉사활동 사진 전시회는 참가자로부터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해양요양방재단(단장 이창용)의 봉사활동 사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만남의 행사가 무르익으면서 센터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진씨의 색소폰 연주와 더불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윤정, 서희씨의 압도적인 무대는 모든 봉사자들이 자리에 일어나 호응을 더해 주는 등 절정에 달했다.

올해 만남의 날 역시 각계각층으로부터 10여 개의 화환과 100여 종의 경품이 이어졌는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최고의 경품(통돌이 세탁기)은 락락락 전문자원봉사단 강사를 따라 함께 참석한 강영덕씨가 행운을 잡았다.

한편,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이 행사를 책임 수행한 김진아 팀장은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라도 더 나눔을 베풀어서 한해 노고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경품마련에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다. 부족한 점을 내년을 기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적 봉사 시점, 2022년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은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다. 사무국 직원들의 휴대폰 카톡과 메시지를 통해, 전화를 통해, 봉사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이번 만남의 날, 멋져보였어~~~”라는 격려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특집(5)

2022년도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회, 그 현장을 가다

지난 2022년 12월 3일(일)부터 5일(월)까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30명을 선정한 가운데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 17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 참여했다.

시청에서의 행사실비지원금 9백만 원과 자부담 7백여만 원이 소요된 가운데 참가했던 봉사자들의 얼굴이 행사 내내 밝았다.



첫째 날에는 인천지역 월미도를 찾아 바다열차 등 체험을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화성군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동탄호수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전국봉사자대회에 참관했다.

이날 대회에 참관한 자원봉사자 송영순씨는 “실로 얼마만의 나들이인지 모른다. 3년 만에 전국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게 돼 감회마저 새롭다.”라고 말했다.

어우령건축기술봉사단 박재권 사무국장 역시 “모처럼 맞이하는 전국대회를 겸하여 우수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벤치마킹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과 함께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는 정부포상 시상식도 개최되었는데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서귀적십자봉사회 등 무려 11개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31년째 전방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미자씨가 국무총리상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12월 16일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석상에서 국민추천제로 상신된 제주특별자치도 폴리스봉사단 오원종 이사가 역시 국무총리상을, 서귀포모범운전자회 강승희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영광의 이름을 올렸다.

모처럼 열렸던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우리들의 결의를 다짐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전국대회 참가자들의 다짐

1. 자원봉사는 세상을 잇는 힘입니다. 자원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헌신,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전문적 리더십, 그리고 그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2. 우리는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때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3. 자원봉사 뉴노멀을 만드는 우리의 힘을 믿으며, 더 나은 자원봉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 자원봉사들은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자원봉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자원봉사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5. 활동 현장과 일터에서 자원봉사로서의 품위와 책무를 다하며 자원봉사 관리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센터격려 메시지

들 응원합니다 ~
들 함께 하겠습니다 ~
거만이나 성이 격한 분들과 분사가
모두 화하여 넘칠수 있기를 바라며 ~
한 이 일 !
생일 - 나. 너. 우리 봉사단

강순미
삼성-나, 너, 우리봉사단

가정봉사자의 영혼을 성의
주변봉사센터 9시 - 0
초이강선과 홍서리
리우 한 영숙

한명숙
초아적십자봉사회

가정대 활동 봉사자를 육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에 대비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전통 봉사단 육성에도 행정적 지원을
강화 드립니다.
서귀포 경찰서 오병봉원장 귀하
강승희

강승희
서귀포경찰서모범은전자회

지금도 두근거리고 있지만, 동행하고
단단한 사랑과 신원 사당은
개별적 구제로 이어집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재완
서귀포시자치행정과

봉사단 나눔증정제라는
경쟁력이나 등 선으로 보여야
나눔의 힘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서귀포 자원봉사자 여러분!
서귀포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변봉남
서귀포시새마을회

자원봉사를 인연으로 간직하기 위해
봉사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수요한 활동과 자원으로 응원하는
서귀포 자원봉사센터 여러분!
서귀포 불교사바봉사회 변정철

변정철
서귀포불교사바봉사회

서귀포시원이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힘이다!!!
서귀포 자원봉사센터와 항상
소통합니다
서귀포상상로타리클럽 회장 김영미

김영미
서귀포상상로타리클럽

나에게 날사랑??
두려움 같은 것. 사랑이 약한 것만
만약이면 나랑 무한히. 영원한 나눔을 위해
'남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외에 내가 한다.
행복드림 비전 센터 대표 강영아

강영아
행복드림비전센터

서귀포 자원봉사 물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서희경

서희경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자원봉사선취 화이팅!!!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로 인해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할수 있다면 지금처럼
꼭~ 봉사하겠습니다.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이신선

이신선
서귀포YWCA

덕유산과 강아산의 만남만큼이나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같은 인생에 믿음은 서로 주어져야
아는 봉사!!
덕유산 국립공원 자원봉사단 하이킹
과제는 자원봉사센터 하이킹
- 덕유산 국립공원 하이킹 -

김경자
원추리봉사단

자원봉사로
따뜻한 서귀포시를
유리하게 만들어요!
피어나리다 함께 돌봄센터
선하장 강순영

강순영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커한 자원봉사자의
발광이 공익에서
알려진 거 같습니다.
사랑받아서 권리는
상반적

강형석
사람발자국관리소

작은 봉사로 서귀포시
근로가 하나씩 되는 날까지
서귀포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해주세요
분할 의무의 의무와 상행

안상덕
칠팔동우회

자원봉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름다운가게 서귀포점이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후원합니다!!
아름다운가게 서귀포점 서정민

서정민
아름다운가게 제주본부